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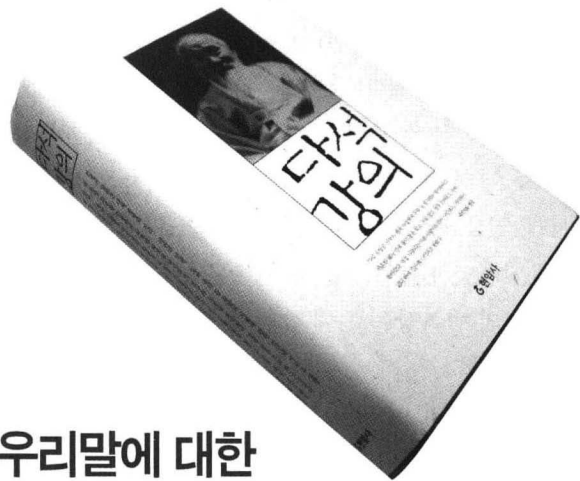
사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장미와 씨날코) 김진송 지음 | 푸른역사 | 380쪽 | 값 15,000원

최 근 유행하고 있는 사료연구에 대한 회의이자 '착오'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다. 이야기는 1999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아일보사 신문박물관 책임기획자로 있던 저자는 낡은 캐비닛에서 서류뭉치를 발견한다. 서류에는 장미와 씨날코부터 깨소금, 멧돼지 뒷다리, 병아리, 수박, 바늘쌈지 등 온갖 물품들과 이것들을 들고 온 사람, 분단위의 시간이 적혀있었다. 서류의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당시 2인자였던 이기봉과 그의 부인 박마리아에게 바친 뇌물목록인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뇌물이라고 보기엔 이 물품이 너무 소박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애초부터 이 서류에 담긴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역사는 "일련의 사건으로 점철되는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전개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신 그는 더 큰 의문, 즉 자신이 태어난 1959년과 검은 그림자들이 이기봉의 집을 오간 1959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당시 발행된 신문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난다. 시발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상춘객으로 초만원인 창경궁, 뿌리 내리는 미국문화 등 당시 사회상을 관찰한다. 일상에 다가갈수록 저자가 목격하는 것은 당시의 부패상과 이승만과 이기봉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들이다. 뇌물이라는 지레짐작에서 뇌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 다시 뇌물일 수밖에 없는 '장미와 씨날코'를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팩션'처럼 흥미롭게 서술된다.

신동섭 기자



우리말에 대한 지고한 사랑으로 펼쳐낸 지성사

(다석강의) 다석학회 엮음 | 현암사 | 976쪽 | 38,000원

함 석헌 선생이 평생 '선생님'이라고 부른 단 한 사람, 다석 유영모(1890~1981) 선생은 한국 지성사와 정신사를 동시에 관통하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다석강의》는 그가 1956년부터 1957년까지 행한 연경 반강의를 묶은 책. 명 문장가였음에도 평생 한 권의 저술도 남기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한 제자들이 속기사를 동원해 기록한 것을 반세기만에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YMCA에서 행한 다석강의는 생명과 진리, 자연과 인생, 도와 윤리 등 참삶의 지혜를 성경과 동양 고전을 인용하며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우리말 발음과 어원에서 본래의 뜻과 비의(秘義)를 밝히고 살려내 고전 해석에 활용하였고, 잃어버린 우리말들을 되살려 쓰도록 가르쳤다.

유영모 선생은 특히 한글을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낸 계시라고 생각했다. 한글의 핵심은 가운데 짝기(無極而太極)라고 못박고, 한글의 ㅅ·스·츠로 되는 삼층구조를, '삶'이 '쫘'이 되고 '쫘'이 되는 진리탐구의 방법으로 여겼다. 그에겐 한글 자체가 진리의 구현이며, 한국어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도구였다. 책은 함석헌의 씨알 사상운동의 사상적 원류를 보여준다. 또 농촌 운동에 평생을 바친 인간 상록수 류달영 선생과 기독교사의 기존 해석에 한계를 느끼고 참신앙을 추구한 정양모 신부 등 실천하는 지식인들을 길러낸 다석의 면모를 울곧게 보여준다.

장동석 기자

오감(五感)과 심장으로 느끼는 세계

〈펭귄뉴스〉 김종혁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80쪽 | 값 10,000원

2000년 문학과사회에 중편 〈펭귄뉴스〉를 발표하며 등장한 김종혁의 첫 소설 집.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 눈앞에 언제나 흔하게 있지만, 너무도 사소하여 그냥 지나치고 마는 사물들에 대한 관심과, 낯고 소용가치가 떨어져 사람들에게 잊혀진 구시대의 유물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아낸다.

관습에의 저항을 의미하는 ‘비트 해방 전선’에 뛰어드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표제작 〈펭귄뉴스〉를 비롯해, 〈무용지물 박물관〉, 〈발명가 이눅씨의 설계도〉, 〈명칭한 유티쿼터스〉 등 여덟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무용지물 박물관〉은 작가의 소설 세계의 근간을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사물을 말로 스케치해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주는 ‘메이비’라는 디제이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무심히 흘려버린 사물들에게 손을 뻗어 그것들 안에 숨어 있는 사연과 존재의 가치를 끄집어낸다.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의 등장 인물이 “훌륭한 선인장이 없듯 훌륭한 인간도 없어. 모든 존재의 목표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어”라고 내뱉는 말은 작가의 소설 쓰기의 방향을 짐작케 한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나’가 에스키모들에게 배운 대로 나무 지도를 더듬으면서 느낀 교감은, 종이 지도로는 결코 맛볼 없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어 준다. 그곳은 머리로 느끼는 관습적인 소통이 아닌 오감(五感)과 심장을 통해 살아 있는 것들을 느끼는 세계이다.

김지희 기자



활쏘기의 매력에 빠지다

〈활을 쏘다〉 김형국 | 효형출판 | 264쪽 | 값15,000원

“**쏠** 수록 묘미가 있고,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어 글로 활을 더 배우고자 한다”

예순이 넘어 활을 잡은 노교수의 애정이 가득 담긴 책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취미와 관심을 담아낸 주관적이고 심심한 텍스트라 여기는 것은 선부른 태도다. 우리 활을 사용하는 활쏘기, ‘국궁’의 사회문화사를 탐구한 책은 말 그대로 활을 쏘는 행위인 ‘국궁’의 역사, 문화사를 두루 아우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활에 빠져 사는 현대의 궁사들 이야기까지 ‘활’에 관한 웬만한 자료들이 담겨있다.

책은 일본이나 북아메리카의 활과 비교할 때 우리 활은 날아가는 힘과 거리가 훨씬 뛰어날 뿐 아니라, 민족적 정기를 담은 매개체로 남다른 역할을 담당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궁 문화 찾기’라는 부제가 붙어도 손색이 없을 법한 내용 중에는 고대 중국 병서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발췌한 활의 역사가 망라돼있다. 또한 활, 화살, 활터, 활쏘기 대회 〈탐라순력도첩〉 〈어사도 御射圖〉 등 54컷에 이르는 도판자료와 김홍도, 박수근, 정선의 관련 그림들이 선을 보인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 김형국 교수는 2003년부터 취미로 시작한 국궁의 매력에 빠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활을 쏘는 ‘궁사’다.

송보경 기자